

『우애』정치 의 사상과 실천

—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의 외교와 내정

도자와 히데노리(戸澤英典)

1. 들어가며

2009년 5월 16일에 열린 민주당 대표선거 당시, 회의장에 들어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는 “투표에 앞서 진행되는 연설에서 무엇을 호소할 것인가?”라고 묻는 TV의 취재에 대해 “이 나라에서 사라져 버린, 사어(死語)가 되어 버린 우애(友愛), 사랑(愛)을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때를 전후로 ‘우애’는 인터넷의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리고 9월 16일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¹⁾이 발족한 이래, ‘우애’사상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우애’라는 일본어는 하토야마 수상이 즐겨 쓰는 ‘리버럴’(liberal)과 마찬가지로 애매하면서도 듣기 좋은 울림이 장점이다.²⁾ 하지만 ‘우애사회’ 실현이 하토야마

• 지은이 | 도자와 히데노리(戸澤英典), 도쿄대학 법학부(정치학전공)를 졸업하고, 동 대학 법학연구과에서 ‘유럽통합과 아데나워 외교’를 주제로 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 법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박사과정 재직 시에 독일 학술교류회(DAAD) 장학생으로 옛센중합대학에 유학한 경험이 있다. 주된 연구분야는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재’이며, 저서(공저)로 『국제관계 속의 확대 EU』(国際関係の中の拡大EU, 信山社, 2005)가 있으며, 『범 유럽 운동의 헌법체제 구성』(パン・ヨーロッパ運動の憲法体制構想)』(2003)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오사카대학(大阪大学) 법학연구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도호쿠대학(東北大学) 법학연구과에 준교수로 재직 중이다.

1) 본고에서 단순히 ‘하토야마 수상’ 혹은 ‘하토야마 정권’이라고 기술할 경우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혹은 내각)을 가리키며, 하토야마 이치로 수상 혹은 정권을 의미할 경우에는 ‘하토야마 이치로 수상’, ‘하토야마 이치로 정권(내각)’이라고 표기한다.

2) 하토야마 수상은 ‘우애’와 ‘리버럴’(liberal)을 종종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1995년 10월 중의원본회의 때 대표질문에서 ‘리버럴이란 사랑이다’라고 한 것이 본회의장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이 부분이 ‘우주인발언’의 하나로 거론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발언은 ‘정치의 세계에서 사랑을 주장하는 이가 참으로 적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총리를 역임했던 나의 조부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는 줄곧 우애 혁명을 외쳐 왔습니다……’라는 것이었다. 衆議院本会議・第134回 第2号(村山総理大臣の所信表明演説に対する代表質問, 平成 7年 10月 2日(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鳩山由紀夫, 『わがリベラル・友愛革命』, 『Ronza』(論座), 1996년 6月号, 42-51쪽 참조.

정권의 정책목표로 제기되고, ‘우애’의 내용이 현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애매한 편안함에 결코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다. 현재 ‘우애’는 그 내용의 진지한 음미가 요청되고 있으며 정치적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면 11월 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문자로 나선 자민당의 중의원 의원 가토 고이치(加藤紘一)는 발언 모두에서 “우애는 일본이 지향하는 보수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하토야마 수상에게 정면으로 ‘우애’를 둘러싼 논쟁을 제기했다. 가토의 문제의식은 “하토야마 집안의 가훈에 불과한 우애가 국가의 방침이 되어 버렸다. 과연 몇 명의 각료가 이 말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다.³⁾ 가토는 하토야마 이외의 각료에 대해서도, 예컨대 하토야마의 측근인 오자와 사키히토(小澤銳仁) 환경대신에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우애를 10초 정도로 설명해 달라”고 몰아붙인 것을 계기로 다른 각료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보면, “자유, 평등, 박애의 박애정신”(오자와 사키히토 환경상), “아시아 속에서 혹은 아시아와 서구 혹은 아시아와 미국 사이의 가교”(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 “배려”(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금융·우정개혁담당상), “21세기의 포스트 공업화사회에서의 인간육성, 그것을 위한 환경정비를 수행하는 것이 국가이며, …… 신념을 지켜야 할 곳에서는 지키고 타협할 때는 타협하는 그런 것이 이번 내각에 부여된 역할이다. …… 그것이 우애의 구체적인 내용”(센고쿠 유키토仙石由人 행정쇄신담당상),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박사가 『인간의 안전보장』 속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권, 인간의 존중을 보장하며, 그리고 그것을 공동으로 실천하는 …… ‘관’(官)만이 공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새로운 패러다임”(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총무상) 등과 같다.⁴⁾

일반적인 용법은 확산의 정도가 더욱 심하다. 요리를 좋아하는 하토야마 수상

3) 가토 고이치(加藤紘一)가 이 논쟁에서 의도했던 점은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09년 11월 3일자 기사 “우애란? 가토 씨의 도발”(『友愛とは、加藤氏は挑んだ』)에 자세히 나와 있다.

4) 衆議院会議録 予算委員会 第173回 第2号, 平成 21年 11月 2日.

부부를 빚댄 ‘우애 미식가’(グルメ), ‘우애 조리법’(レシピ)과 같은 표현은 이미 여성 주간지와 와이드쇼(wide-show)의 유행어가 되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시구식에 서 포수에 도달하지 못한 하토야마 수상의 시구는 ‘우애 직구’라 불렸으며, 도쿄 오다이바(お台場)에는 ‘우애 (크리스마스)트리’가 등장했고, 하토야마 수상을 빼닮은 연예인인 하토야마 구루오(鳩山來留夫)는 ‘우애 개그’를 선보이고 있다.⁵⁾

이러한 현재 상황을 감안하며, 본고는 ‘우애’ 정치의 내용을 그 사상적 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탐구하고, 그 위에서 현재의 하토야마 정권이 추구하는 내정과 외교의 구체상(具體像)으로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초의 이공계 출신 수상인 하토야마 유키오가 학자의 길을 벗어나 정치가를 지망하게 된 계기는 유학 중인 1976년, 즉 건국 200주년을 맞이한 미국 국민의 열광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애국심’에 눈뜨게 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⁶⁾ 그의 정치적 태도는 그가 존경해 마지않는 조부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의 생각을 상당히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우애’의 기원을 검증하기 위해 쿠덴호프-칼레르기(Richard Nikolaus Graf Coudenhove-Kalergi)와 일본의 관계를 되짚어 보는 것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2. 쿠덴호프-칼레르기과 일본

유럽통합의 주창자로서 쿠덴호프-칼레르기 백작(이하 쿠덴호프 백작)의 이름은

5) TV프로그램이나 잡지기사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오야 소이치 문고(大宅壯一文庫)의 잡지기사 색인검색에 의하면, 본고 집필 단계에서 ‘우애’의 검색 건수는 147건으로, 그 중에 하토야마 유키오가 민주당 대표에 취임한 2009년 5월 이후의 기사 44건으로 가장 많다. 그 대부분이 하토야마 유키오와 결부된 용법이라는 점에서 일반명사로서 ‘우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2009년 이전과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 준다.

6) 하토야마 유키오가 정치가를 지망하게 된 이유로는 유학 중인 1975년에 결혼한 미유키(幸) 부인의 영향도 지적되곤 한다.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 2009년 5월 17일자 「천성인어」(天聲人語)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여성지에서 ‘제 경우는 남의 부인과 연애를 해서 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경위도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다. 유학한 미국에서 알게 된 다카라즈카(宝塚) 출신의 미유키 부인을 말한다. 이 만남으로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정치가의 뜻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서구보다도 오히려 일본에서 유명하다.⁷⁾ 현재 유럽에서는 EU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로는 ‘발안자’(l’inspirateur)로서 장 모네(Jean Monnet)가, 그리고 그것의 실현에 노력한 정치가로서 로베르트 슈만(Robert Schuman), 아데나워(Adenauer, Konrad), 데 가스페리(De Gasperi)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면 쿠덴호프 백작의 지명도는 의외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유명세는, 전전부터 가자마 모리노스케(鹿島守之助) 등에 의해 『범(汎)유럽』을 비롯한 쿠덴호프 백작의 저작이 적극 소개되고, 쿠덴호프 백작의 모친인 아오야마 미쓰코(青山光子)가 ‘EU의 조모(祖母)’로서 여러 차례 미디어를 통해 다루어진 점, 특히 대중문화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⁸⁾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쿠덴호프 백작과 일본과의 관계도 전전과 전후 양쪽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 것은 가자마 모리노스케, 하토야마 이치로 그리고 창가학회(創価学会)였다.

외교관보로 베를린에 부임한 나가토미 모리노스케(永富守之助, 후일의 가자마 모리노스케)는 쿠덴호프 백작의 사상에 감명을 받아 『범유럽』을 번역, 1927년(쇼와 5년)에 국제연맹협회를 통해 간행하였다. 모리노스케에 따르면 “내가 부임지로부터 외무본성으로 전근의 명을 받아 베를린을 떠나게 된 날, 오스트리아의 젤 암 제(Zell am See)에서 우연히 쿠덴호프를 만났는데, 그는 나에게 ‘나는 범유럽을, 당신은 범아시아를 조직해야 한다. 범아시아의 성립을 위해 범유럽에 반드시 필요하지

7) 쿠덴호프-칼레르기 백작이 유럽통합에 기여한 공적이 망각되고 있는 상황이나 요인에 대해서는 줄고, 『동구권 EU 가맹의 세계사적 의미』(中東欧EU加盟の世界史的意味), 『海外事情』, 2003년 10月号, 53~63쪽.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중·동부 유럽의 EU 가맹이나, 시민사회의 행위자(actor)에 대한 주목을 배경으로 최근에는 쿠덴호프-칼레르기 백작이 유럽통합에 끼친 영향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8) NHK 개국 25주년 기념으로서 1973년 3월에 방영된 TV드라마 「국경이 없는 전기—쿠덴호프 일가의 사람들」(国境のない伝記—クーデンホーフ家の人びと, 요시나가 사유리吉永小百合 주연)을 비롯해, 그 후에도 ‘미쓰코’(ミツコ)는 수차례 미디어에서 다루어졌다. 이 밖에 최근의 예를 들자면, 1994년 처음 출연 이래 14년에 걸쳐 연기했던 요시유키 가즈코(吉行和子)의 1인극 「MITSUKO」(각본 연출: 오마치 야스코大間知靖子)나, 2000년 6월의 신바시엔부조(新橋演舞場)에서의 공연 「미쓰코」(ミツコ, 다이치 마오大地真央 주연), 2002년 ‘쿠덴호프 미쓰코 전(展)’ 등이 있다. 또 야마토 와키(大和和紀, 1977)의 「레이디 미츠코」는 『걸작자선집』(傑作自選集)으로 1994년에 재판되기도 하였다.

않은 인도네시아를 우정의 징표로서 드리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⁹⁾ 실제로 모리노스케는 외무성을 사직하고 1930년 2월 제17회 중의원선거에서 효고 4구(兵庫 4区)에 입후보했지만 낙선하고 만다. 그후 모리노스케는 데릴사위로 들어간 가지마구미(鹿島組, 현재의 가지마건설)를 경영하면서, 한편으로는 '범아시아'의 실현을 위한 외교평론가로서도 활약했다. 이러한 가지마 모리노스케가 쿠덴호프 백작의 사상을 수용한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다. 세계를 5대 블록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통합한다는 범유럽 구상은 전전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아시아주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¹⁰⁾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전전의 아시아주의에 대한 영향과는 다른 형태로 쿠덴호프 백작의 사상이 수용되었다.

하토야마 이치로가 쿠덴호프 백작의 사상을 접하게 된 데에는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좌우하고 있다. 하토야마 이치로는 1946년(쇼와 21년) 5월 연합군총사령부(GHQ)에 의해 공직추방 처분을 받았는데, 추방기간은 5년 3개월이었다. 그리고 이 공직추방 기간에 하토야마 이치로는 쿠덴호프의 저작을 접하게 된다.

본격적인 청경우독(晴耕雨讀) 생활에 들어갈 때까지, 1년 계획으로 아타미(熱海)에서 지냈는데, 쿠덴호프-칼레르기의 책에 대한 평판이 대단히 좋았던 탓에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우선 아타미에서 이 책의 번역에 착수해 보았다.¹¹⁾

하토야마 이치로가 쿠덴호프 백작의 저작을 만나게 된 것은 후일 와세다대학 정경학부 교수가 된 이치무라 게사조(市村今朝藏)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이치

9) 쿠덴호프·칼레르기, 『쿠덴호프·칼레르기全集』(全9卷), 鹿島出版会, 1970.

10) 이 점을 간단하게 소개했던 것으로 참고, 『欧州統合運動とクーデンホーフ・カレルギー』(講演録), Human Security(東海大学平和戦略国際研究所)No.8, 2003/2004, 82~101쪽을 참고할 것. 현재 본격적으로 다른 원고를 집필 중이다.

11) 鳩山一郎, 『鳩山一郎回顧録』, 文芸春秋社, 1957, 62쪽.

무라는 오야마 이쿠오(大山郁夫)의 애제자로서 영국헌정사를 전공한 학자였는데, ‘철도왕’으로 불렸던 아메미야 게이지로(雨宮敬次郎, 통상 ‘아메케이’雨敬로 불린다)의 조카이며, 가루이자와(輕井沢)의 광대한 토지를 포함한 아메미야의 재산을 상속 받았다(고노에 후미마로를 매수하여 옮겨 지은 이치무라기념관은 관광지로서도 유명하다). 이치무라는 자신이 소유한 광대한 별장지에 난바라문화촌(南原文化村)을 만들 다음, 그 별장지를 매우 싼값에 지인들에게 양도하여 지식인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때, 하토야마 이치로가 입수한 책은 쿠덴호프 백작이 리스본으로 몸을 피해 미국 비자를 취득하려 했을 당시 포르투갈 공사관의 책임을 맡고 있던 요네자와 기쿠지(米澤菊二) 공사에게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요네자와는 귀국 후, 이 책을 저명한 국제저널리스트였던 마쓰모토 시게하루(松本重治)에게 빌려주었고, 마쓰모토가 가루이자와로 피서를 와 있던 지인 이치무라 게사조에게 다시 빌려주면서, 마침내 이치무라에게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었다.

이치무라는 이 책을 손에 넣자마자 “이 책의 번역은 하토야마 이치로 씨에게 부탁하자. …… 하토야마 씨는 왕년의 우등생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번역은 쉽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총리대신 가운데 이 정도의 책을 출판한 사람은 없었다. 그날을 위해서도 이 번역을 부탁해 두고 싶다”라고 말하고는, 바로 구모바이케(雲場池)에 있던 하토야마 이치로의 저택까지 자전거로 약 20분 거리를 달려갔다.¹³⁾

이렇게 해서 하토야마 이치로는 쿠덴호프의 저서 *Totalitarian State against Man*(1936)을 번역해 1952년(쇼와 27년) 『자유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그는 쿠덴호프의 사상 가운데서도 특히 ‘우애’에 감명을 받았다.

12) クーデンホーフ・カレルギー, 『美の国』, 『クーデンホーフ・カレルギー全集』8巻, 1968, 28~30쪽.

13) 市村きよじ, 『輕井沢 大切な人々』, 日経事業BP出版社, 1998. 하토야마 이치로 자신은 『자유와 인생』의 서문에서 공직 추방 중에 이 번역·출판을 했던 것은 측근 참모였던 정치비평가 이와부치 다치오(岩淵辰雄)의 권유가 컸다고 적고 있다.

내가 우애 사상의 보급을 생각하게 된 것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추방 중 쿠덴호프-칼레르기 씨의 저서 *Totalitarian State against Man*을 번역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책 속에서 “민주주의란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인격의 존엄을 존중함과 동시에 타인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의 존엄도 존중하는 사상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과거 세계의 역사에서 평등을 위한 혁명과 자유를 위한 혁명은 있었지만, 우애를 위한 혁명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민주정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우애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생각에 나는 크게 공명하였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라면 특히 이 우애정신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쇼와 28년(1953년) 4월, 일본우애청년동지회를 조직했다.¹⁴⁾

그렇지만 하토야마 이치로의 ‘우애’ 사상이 쿠덴호프의 사상을 얼마만큼이나 필연적인 전제로 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하토야마 이치로는 프랑크 부흐먼(Frank Nathan Daniel Buchman) 목사가 창설한 도덕재무장운동(Moral Re-Armament)과도 강하게 공명하고 있었다고 회고록에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¹⁵⁾ 부흐먼의 사상도 쿠덴호프 백작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강한 반공산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특히 당시는 청년층 사이에 좌파적 풍조가 강한 시대였기에, 좌파에 대한 대항운동을 표방한 보수 이데올로기라면 내용상의 작은 차이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하토야마 이치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953년 4월 29일(당시의 천황탄생일)에 히비야 공회당에서 결성대회가 열리면서 ‘일본우애청년동지회’가 조직되었다. 초기의 우애운동의 멤버는 정치활동에 열의를 가졌던 보수층의 청년들로, 이들

14) 鳩山一郎, 『鳩山一郎回顧録』, 190쪽.

15) 같은 책, 189쪽.

은 ‘칼레르기 연구회’를 조직, 등사판 인쇄로 만든 텍스트를 가지고 쿠덴호프 백작의 사상을 학습했다. 1956년에는 쿠덴호프 백작을 명예총재로 추대함과 동시에 그를 일본으로 초청할 것을 정식으로 결정하였다.

하토야마 이치로가 1959년 사망한 후에도, 제2대 회장으로 하토야마 가오루(鳩山薫) 부인이 취임하고, ‘재단법인 일본우애청년협회’가 설립되는 등 우애운동은 지속되었고, 쿠덴호프 백작과의 접촉에도 성공하게 된다. 같은 무렵, 가지마 모리노스케는 쿠덴호프 백작이 대전 중 미국 망명을 거쳐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통합운동을 재개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 매우 놀랐다고 한다. 전후 가지마 모리노스케는 공직추방 이후 기업인 가지마구미 경영에 전념하면서 건설업의 근대화에 힘을 쏟아, 가지마건설을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건설회사(General Contractor)로 성장시킨 ‘중흥의 아버지’(中興の祖)로 알려지게 된다.

쿠덴호프 백작과 오랜 교분을 갖고 있었던 가지마 모리노스케의 재정적 지원, 그리고 가지마 모리노스케와 전전(戰前)부터 친교가 있었던 NHK회장 마에다 요시노리(前田義徳)¹⁶⁾의 후원 속에서, 우애청년동지회의 초청으로 1967년 10월에 실현된 2주간의 쿠덴호프 백작의 방일은 커다란 불을 불러 일으켰다. 이 방일을 계기로 미디어와 대중문화에서 쿠덴호프 백작과 아오야마 미쓰코가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이다. 또한 이 1967년의 방일은 쿠덴호프 백작과 일본의 관계에 창가학회라는 새로운 관계자를 등장시켰다.

원래 창가학회에 관심을 보인 것은 쿠덴호프 백작 자신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신의 운동을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곤란을 겪고 있었던 쿠덴호프 백작은 창가학회의 급속한 확대에 관심을 보였다.

16) NHK의 ‘보도의 아버지’(報道の父)라고도 불리는 마에다(前田)는 1967년 11월 6일 쿠덴호프 백작과의 좌담회 ‘평화에의 건설’ 석상에서 “나는 ‘아시아방송연합’이라는 것을 만든 셈입니다만, 그 계기는 사실은 내가 아직 학생이었던 40년 전에 칼레르기 씨의 『범유럽』을 읽은 인상이 살아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창가학회의 회장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와 창가학회의 운동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본여행에 앞서 이케다 다이사쿠와의 회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초청자 측에 부탁해 두었다. …… 이케다는 그의 협력자 그룹과 함께 나를 반겨 주었다. 우리 측의 동반자는 하라다 사토루(原田悟)뿐이었다. 우리들은 통역을 통해 회담을 했다.

나는 곧바로 이케다라는 인물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겨우 39세의 이 남자로부터 시작된(창가학회의) 역동성이 인상 깊었다. 그는 타고난 지도자이다.¹⁷⁾

이 창가학회 방문 이후 창가학회 파리지부가 이른바 ‘대사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1968년경부터 쿠덴호프-칼레르기가 서거하는 1972년까지 양자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 갔다. 1971년에는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의 지상에 쿠덴호프-칼레르기와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의 대담이 연재되었고, 단행본으로 나오기도 하였다.¹⁸⁾ 또한 우시오(潮出)출판사에서는 기타노 히데아키(北野英明)의 『칼레르기 백작』(カレルギ-伯)이라는 만화가 출판되었다.

1970년 10월 6일부터 10월 28일까지의 3주간, 이번에는 창가학회의 시오데 출판사가 쿠덴호프 백작을 초청했다. 10월 11일에는 니치렌슈(日蓮宗)의 총본산인 다이세키지(大石寺)의 견학을 위해 후지노미야시(富士宮市)를 방문했고, 다음 날인 12일에는 정본당(正本堂) 상동식(上棟式)에 참석했다. 또 17일에는 건설 중인 창가대학을 방문하기도 했다.¹⁹⁾

17) クーデンホーフ・カレルギー, 『美の国』, 『クーデンホーフ・カレルギー-全集』 8巻, 241~338쪽. 이 기술에서 알 수 있듯이 1967년 방일 때 초빙의 주최자였던 하토야마·NHK·가치마(鹿島)는 쿠덴호프 백작의 창가학회 방문에 반대하여, 창가학회 본부가 있는 시나노마치(信濃町)에 통역자와 쿠덴호프 백작 두 사람만을 보냈다고 한다.

18) 『산케이신문』의 이 대담 연재는 쇼와 46년 2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되었고, 이것이 다음과 같은 단행본으로 나왔다. C. 카レルギー, 池田大作(対談), 『文明・西と東』, サンケイ新聞社出版局, 1972.

19) 쿠덴호프 백작의 1970년 방일일정에 관해서는 木村毅, 『クーデンホーフ光子伝』, 鹿島研究所出版会, 1971, 464~491쪽 참조.

이처럼 창가학회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 탓에 국영방송인 NHK는 물론이고 가지마 쪽과 일본우애청년동지회는 사실상 조용히 지켜보는 태도를 취했다. 그 때문에 열광적인 붐의 재현을 예상했을 쿠덴호프 백작에게 두번째 일본방문은 '의외일 정도로 조용한 환영에 그쳐 (첫 방문 때와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졌을'²⁰⁾ 터였다.

이렇게 해서 쿠덴호프 백작과 일본의 관계는 1960년대 후반부터 우애운동, 가지마 모리노스케, 창가학회라는 영향력이 큰 행위자를 통해서 확고한 것이 되어 갔다. 쿠덴호프 백작의 서거 후에는 점차 그 영향력이 쇠퇴하지만,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영향, 거기에 우애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그의 사상은 일본이 수용한 외국사상 중에서도 독특한 흔적을 남겼다.

우애청년동지회는 1973년에 우애청년연맹(日本友愛青年連盟)으로 명칭을 바꾼다(대외적으로는 재단법인의 명칭인 일본우애청년협회로 알려져 있다). 주로 국제교류로 활동의 중심을 옮겨서 최근에는 중국에서의 식목활동을 통한 교류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²¹⁾ 초기의 멤버는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수상과 와타나베 고조(渡部恒三) 중의원 부의장, 가쓰라 유미(桂由美) 브라이들 하우스(Bridal House) 사장 등이 손꼽히는데, 이들은 정계와 재계 등에서 확고한 사회적 지위를 구축했으며 그 자손에게까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창설자의 손자에게 그 이념과 활동이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 이는 필자가 인터뷰한 우애운동관계자 여러 명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

21) '우애'를 사용하는 하토야마 일가의 관련단체로는 하토야마우애학원(鳩山友愛塾)과 우애정경간담회(友愛政経懇話会)가 있다. 전자는 2008년 4월에 개강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 학원으로, 하토야마 유키오의 친누나인 이노우에 가즈코(井上和子) 학원장 밑에 연간 20명의 학원생을 두고 있다(<http://hatoyama-yuai-jyuku.com/>). 후자는 하토야마 유키오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이며, 소위 '고인헌금'(故人献金) 문제로 이목을 끈 바 있다. 일본우애청년협회와는 다른 조직이지만, 매스컴에 따라서는 혼동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하다.

3. '우애'와 하토야마 정권의 외교

'우애'의 창시자가 된 쿠덴호프 백작의 사상은 지정학과 문명론에 의거한 것으로 거시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세계정치상의 위치가 정해지면서 그 나라의 운곽이 정해진다. 즉, 국내체제의 차이와 내정상의 문제는 이차적이라는 것이다.²²⁾ 그런 점에서 쿠덴호프 사상의 영향을 받은 하토야마 정권에 대해서도 외교의 측면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일본의 외교정책은 수상의 생각만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정치가, 외무성 등의 관계성청(省庁), 경제계 등이 관여하는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오카다 외상과 다른 유력 정치가 혹은 관료층과 외교브레인 등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논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토야마 수상의 언행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범유럽운동을 일으킨 쿠덴호프 백작의 영향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하토야마가 제출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다. 하토야마가 『보이스』(VOICE)에 발표한 논문²³⁾은 그 후 일부가 번역되어 『뉴욕타임스』에 게재되었는데,²⁴⁾ “수석보좌관이 읽었다면 오바마 대통령에게 반미정권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오바마를 설득했을 것이다”, 혹은 “하토야마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등 큰 반향을 불러왔다.²⁵⁾ 우선은 일본외교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미국과의 관계부터 살펴보자.

하토야마 유키오의 미국에 대한 태도에는 애증이 뒤섞여 있다. 앞서 언급한 바

22) 하토야마 자신도 아소 정권까지 추진되고 있었던 '가치의 외교'에 비판적이어서, '본래 외교관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해 서로가 인식을 공유하며, 타국의 존엄을 존중하면서 보다 평화롭고 행복한 환경을 서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것이며, 타국과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는 '우애의 외교'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鳩山友愛塾 講義資料 2009년2월10日 講師 鳩山由紀夫塾長代行』(非公刊資料).

23) 鳩山由紀夫, 「私の政治哲学 祖父・一郎に学んだ『友愛』という戦いの旗印」, 『VOICE』 9月号, 132~141쪽. 이 논문 텍스트 및 영역본과 한국어 번역본은 <http://www.hatoyama.gr.jp/masscomm/090810.html>에서 열람할 수 있다.

24) *New York Times*, August 27, 2009. (<http://www.nytimes.com/2009/08/27/opinion/27iht-edhatoyama.html>)

25) 山田厚史, 「これで反米的—鳩山論文に怒る」上からの目線の米国」, 『AERA』, 2009년 9월 14일, 62~63쪽.

와 같이 하토야마 유키오가 정치가를 지망하게 된 계기는 스탠퍼드대학에 유학 중이던 1976년, 건국 200주년을 맞이해 미국 국민이 보여 준 열광을 목격하고 나서 ‘애국심’에 눈을 뜨게 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9월 3일 민주당 본부에서 열린 존 루스(John Roos) 주일 미국대사와의 첫 회담 당시,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는 루스 대사의 출신 대학이기도 한 스탠퍼드대학의 풋볼 헬멧을 갖고 나오는 성의를 보였다. 회담 중에도 스탠퍼드 시절의 추억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고 한다.

한편 하토야마 유키오는 “외국인은 반드시 미국인의 본심 속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잠재적인 차별의식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²⁶⁾라는 유보적인 표현도 덧붙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시장원리주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대등한 미일관계’를 강조한다.

이러한 하토야마 유키오의 외교방침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미국식 글로벌리즘(globalism)에 대한 비판이며,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미국을 아시아지역에서 밀어낼지도 모른다는 두 가지로 수렴된다. 또 하토야마 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의 주요 정치가가 중의원 선거 때부터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이전문제에 관한 미일 간의 합의를 재검토하며 오키나와현 밖으로의 기지 이전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 신정권의 성립 후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문제는 하토야마 연립정권 안에서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없는 사안이다. 오키나와를 중요한 표밭으로 하는 사회민주당은 미군기지의 현외이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하토야마 수상과 오키나와 외상에게도 과거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하토야마 내각의 불일치가 지적되고 있다. 국내 여론에 떠밀린 형태로 2009년 11월 3일에 이루어진 미일정상회담에서는, 오키나와 미군의 후텐마 비행장 이전문제에 관해 각료급 미일작업부회(日米作業部会)를 설치

26) 鳩山由紀夫, 『わがリベラル・友愛革命』, 44쪽.

하기로 합의하여, 그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당 대표가 12월 4일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연립정권 이탈 가능성을 표명하면서, 현행 후텐마 기지 이전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의 연내 해결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당수선거의 결과는 입후보를 검토하고 있던 오키나와 2구를 지역구로 하는 데레야 간토쿠照屋寛徳 중의원 의원이 후텐마 문제에 관한 후쿠시마 당수의 태도를 평가한다는 명분으로 출마를 포기한 탓에 후쿠시마 당수의 4선이 무투표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하토야마 연립정권의 태도에, 미국의 관계자 중에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지 10월 22일자 보도²⁷⁾는 일본에서도 크게 거론되었는데,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중국이 아니고 일본’²⁸⁾이라는 미 국무성 고위 관리의 발언은 일본 국내에서 지나칠 정도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원래 미국에서 민주당 정권이 등장하면 일본외교는 잘 풀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1990년대 클린턴 정권 시절에는 ‘재팬 패싱’(Japan Passing)이라 불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지난 2009년 11월에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 이 보여 주듯, 오바마 정권의 중국 시프트가 현저한 가운데 ‘재팬 패싱의 재래(再來)’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이러한 미국 측의 자세에 대해서 과도한 반응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토야마 유키오의 외교브레인이기도 한 데라지마 지쓰로(寺島實郎) 일본종합연구소 회장은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도 완전히 하나의 입장은 아니다. 각자의 생각과 입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것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외교의 패

27) “U.S. pressures Japan on military package — Washington concerned as new leaders in Tokyo look to redefine alliance”, *Washington Post*, October 22, 2009(<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9/10/21/AR2009102100746.html>).

28) 이 번역은 『아사히신문』 2009년 10월 23일자 기사에 따른 것이다. 원문은 “the hardest thing right now is not China, it's Japan.”이며, ‘골치아픈[厄介]’이라는 번역어는 지나치게 강한 경향이 있다.

배²⁹⁾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관계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응할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다수파인 것 같다.

한편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2009년 10월 25일에 열린 일본·ASEAN 정상회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요청하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또 후텐마 기지의 이전문제에 관해서는 국내여론과 대미 외교의 균형을 잡는 쪽으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³⁰⁾

그럼 미국 이외의 각국에 대한 외교를 순서대로 살펴보자. 하토야마 유키오의 정치적 입장은 하토야마 이치로의 노선을 매우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하토야마 이치로 정권의 금자탑이라고 한다면 일소국교회복을 들 수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도 오랫동안 일본·러시아협회의 회장을 역임했고(수상 취임 후에는 동생인 하토야마 이쿠오鳩山郁夫가 회장으로 취임했다), 도시공학 연구자인 장남 기이치로(紀一郎)는 모스크바대학의 연구원으로서 일가가 모두 러시아에 체재하고 있다. 하토야마 수상의 외교과제 중에서도 대러시아 외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혹은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이 우애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른다.

러시아 측도 하토야마 정권을 호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2009년 11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러일정상회담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방영토문제에 관해서 “국내에는 만만치 않은 여론이 있지만, 하토야마 정권 동안에 꼭 진전시키고 싶

29) 『週刊朝日』, 2009년 11월 27일호.

30) 『산케이신문』, 2009년 12월 8일자, 「후텐마(普天間), 수상은 언제 결단할 것인가: 풀리지 않는 연립4차방정식 — 계속되는 “초심자운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올해 10월에 캠벨 미 국무차관보가 외무성 간부에게 “하토야마 정권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3명이 외교정책을 처리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지적하고, 테라시마 지쓰로, 스가와 기요시(須川清司) 내각관방 전문조사원, 사노 다다카즈(佐野忠克) 수상비서관(정무)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한다. 수상의 측근인 이들 3명은 외무성이나 방위성이 아닌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미국 정부 고관과 접촉하고 있는데, 이들의 영향으로 하토야마 수상은 “후텐마 문제가 큰 이슈가 될 일은 없다”라는 오만을 하게 되었으며, 또 미일각료급 작업그룹에서도 “미국 측이 목숨 걸고 교섭에 임하고 있는 데도, 일본 측은 애송이 같은 아마추어에게 맡긴 듯한 논의를 해왔다”는 것이다. 본래 측근 그룹의 영향이나 일본 측의 교섭자세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미국 측이 “목숨 걸고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도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아소 정권 시대와는 다른 러시아 측의 자세에 대해 하토야마 정권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동시에 러시아 국내에서는 영토문제에서의 양보에 대한 경계심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³¹⁾ 북방영토문제를 포함한 대러시아 외교의 진전은 여전히 쉽지가 않다.

대중국 외교도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하토야마 정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임에 틀림없다. 중국의 경우에는 하토야마 이치로 시대부터 일본우애헌년협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가와데 쇼이치로(川手正一郎, Nissey Delica 회장) 상무이사의 존재가 주목을 끈다. 일본우애헌년협회의 주요사업의 하나가 중국에서의 식목활동이다. 가와데 상무이사의 중국방문은 20회를 넘어서고 있으며,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출신단체인 ‘중화전국청년연합회’(전청련)와의 사이에도 두터운 파이프가 존재한다. 가와데 상무이사의 지론인 중일이해의 필요성은 하토야마 유키오에게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 러시아, 중국과 비교할 때,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하토야마 정권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은 듯하다.

대한국 정책을 보면, 2009년 10월 9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거론된 테마는 북한문제와 문화교류의 강화 등으로, 자민당·공명당 집권시기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같은 해 6월 28일 아소 정권 아래서 이루어진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FTA 교섭의 재개를 향한 실무자협의, 우주, 원자력협의, 환경 등과 같은 구체적인 테마를 포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³²⁾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임시국회가 끝나고 12월에 하토야마 수상의 전격 방

31) 『朝日新聞』, 2009년 11월 26일.

32) 10월의 한일정상회담 전후에 하토야마 유키오 사무소에서는 이치무라 고이치로(市村浩一郎) 중의원 의원의 친구로서 일한청년포럼을 시작한 NPO활동가인 윤성준(尹星駿) 씨를 동아시아 고문으로서 채용하였고, 윤씨가 대 한국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아주경제』, 2009년 10월 14일자 기사(<http://www.ajnews.co.kr/uhtml/read.jsp?dxno=200910141515259300570>) 등.

북계획이 존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오자와 간사장은 이 방북계획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임시국회에 외국인지방참정권법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실제로 오자와 간사장의 측근인 아마오카 겐지(山岡賢次) 중의원국회대책위원장이 조금은 갑작스럽게 법안제출의 의향을 표명했다. 외국인지방참정권법안의 제출은 북일교섭의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이 법안에 찬성하는 공명당과 반대가 강한 자민당 사이를 내년 여름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이전에 갈라놓겠다는 선거전략상의 이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한다.³³⁾

그러나 하토야마 수상의 전격 방북은 현재까지 실현되고 있지 않다.³⁴⁾ 그러나 앞서 언급한 보도가 부분적이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토야마 정권의 대 한 반도 외교는 전격 방북으로 지지율을 회복한 고이즈미의 방북과 같은 효과를 노리면서, 나아가 외국인지방참정권법안이라는 수단에 의한 상승효과를 도모한다는 선거전략에 종속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토야마 브레인인 데라지마 지쓰로는 ‘근린 외교 등에서 어떤 이론무장을 하는가에 따라 우에 외교가 공허한 것에서 체계적인 것으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대한반도 외교에 잘 들어맞을지도 모르겠다. 내년(2010년)은 한일합병 100주년으로, 국내사정(선거전략)에 유래하는 것과는 다른, 우에 외교의 일환으로서 대 한반도 외교의 기본자세를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토야마 정권의 기타 지역 및 국가, 기타 쟁점에 대한 외교에 대해서는 아직 그 중점 영역을 잡아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구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

33) 『週刊朝日』, 2009년 11월 27일. 『산케이신문』, 2009년 12월 11일자 기사에 의하면, 당돌한 감이 있는 외국인지방참정권 법안 제출은,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에 적극적이며 “한국과 북한의 쌍방에 강한” 가와카미 요시히로(川上義博) 참의원의 원이 11월 4일에 오자와 간사장에게 제안한 의원입법 요망이 발단이 되었다. 오자와는 가와카미에 대해 ‘아마오카(山岡)’와 상의해 달라’는 대략적인 지시를 내렸고, 아마오카가 오자와의 의도를 숙고해 6일 가와시키 지로(川崎二郎)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에 제출 의향을 표명했다고 한다.

34) 12월 8~10일 사이에 방북했던 보스워스 미 특별대표와 12월 12일에 회담을 가진 오카다 외무장관은, 보스워스 특별대표로부터 보고를 받은 북미협회의 형태와 관련해서, “북한은 남치문제도 포함하여 북일 간의 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말해 북일교섭 재개를 향한 움직임을 시사했다.

든 주요국에 의한 실효성 있는 국제적 틀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2020년까지 온실 가스를 1990년 대비 25% 삭감한다는 ‘하토야마 이니셔티브’를 제창했는데, 외교 데뷔무대였던 유엔총회에서의 연설이었던 만큼 큰 주목을 끌었다. ‘자연이 보유한 에너지가 당연 인간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규모인 것에 경외심을 가지며,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행동한다’는 것도 우에 외교의 일환인 점은 틀림 없을 것이다.³⁵⁾

4. ‘우에’와 하토야마 정권의 내정

이제까지 하토야마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원래 ‘우에’의 사상은 국내체제에 관한 것이다. 『보이스』에 실린 논문에서 하토야마 유키오는 무샤노코지 사네아쓰(武者小路実篤)의 “너는 너, 나는 나다. 하지만 친한 벗”(君は君, 我は我也, されど仲良き)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우에’를 ‘자립과 공생의 원리’로 재정의했던 1996년 구(舊)민주당 결성 당시를 되돌아보고 있다.

이 ‘자립과 공생의 원리’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내정상의 과제로 연결된다. 첫째, (미국 주도의 글로벌리즘에 대항하는 듯한) 공생의 경제사회 건설과 쇠약해진 일본의 ‘공’(公)적 영역의 부흥이다. 『보이스』의 논문에서는 ‘시장지상주의로부터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공생의 경제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여 ‘글로벌리즘이 석권하는 가운데 방치되었던 경제외적 제(諸)가치에 눈을 돌리고, 사람들 간의 연대의 재생, 자연과 환경에의 배려, 복지와 의료제도의 재구축, 교육 및 보육 환경의 충실화, 격차의 시정 등에 대처하는’ 것이

35) 鳩山由紀夫, 『わがリベラル・友愛革命』, 46쪽. 하토야마 일가 쪽에서는 어머니인 하토야마 야스코(鳩山安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다케다 기네오(武田記念男)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NPO법인 지구배클럽(地球船クラブ, <http://www.chikyusuken.org/>)이 ‘자연과의 공생’이라는 이념 아래에서 재활용 시스템의 구축이나 환경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과제를 재정상의 제약 속에서 달성하기 위해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공’(共)이다. 10월 26일에 있었던 소신표명연설에서 하토야마 수상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찍이 ‘모두가 모두를 알고 있다’(誰もが誰もを知っている)라는 지연·혈연형의 지역공동체는 어느덧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단순히 옛날 식의 공동체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공동체의 존재방식입니다. 스포츠와 예술문화활동, 보육, 간호 등의 영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 환경보호운동, 지역방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소통 등을 활용하여 ‘모두가 모두를 알고 있는’ 신뢰의 시민 네트워크를 다시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 재건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이전부터 가네코 이쿠요(金子郁容) 게이오대학 교수(정보론) 등이 다듬어 온 ‘커뮤니티 솔루션’이다.³⁶⁾ 이것은 지역과 학교라는 커뮤니티에서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과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을 가리키는데, 도쿄도(東京都) 미타카(三鷹) 시립 제4소학교의 시도가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 학교에서는 20명인 학급에 5명의 자원봉사자가 들어가 산수 등을 가르치는 시스템을 만든 후, 분수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이 사례는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가 2009년 5월 24일에 있었던 대표자 토론에서도 거론하면서, 비용도 들지 않고 자원봉사자에게는 행복감을 안겨 준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³⁷⁾

원래 이러한 ‘커뮤니티 솔루션’에는 ‘특기분야’가 있는데, “보육, 간호, 의료, 교

36) ‘커뮤니티 솔루션’(Community Solution)은 ‘거버먼트 솔루션’(government solution: 정부에 의한 해결) 및 ‘마켓 솔루션’(market solution: 시장에 의한 해결)과의 대치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鳩山友愛塾 講義資料 2009年 2月 10日 講師 鳩山由紀夫塾長代行』.

육, 상담 등, 사람들이 상처받기 쉬운 부분에 직접 관여하는” 휴먼 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³⁷⁾

따라서 이러한 ‘공’의 실행을 ‘특기분야’로 확충한다고 해도, 그 이외의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정부 역할을 재건하는 것도 불가결하다. 그러한 이유로 철저한 행정·재정 개혁이 제2의 과제가 된다.

하토야마 수상은 소신표명연설의 첫머리에서 ‘전후 행정의 대청소’를 주창했는데, 하토야마 내각이 우선 착수한 것은 ‘정치주도’를 실현한다는 목적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의 개혁이다. 사무차관회의를 폐지하고 내각위원회의의 활용과 각료회의의 실질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행정 각 부에서의 정책결정도 대신/부대신/대신정무관으로 이루어지는 정무삼역회의가 담당하는 형식으로 개편했다. 또한 신설된 행정쇄신회의 산하에서 워킹그룹이 ‘사업 재검토’(事業仕分け, 仕分け는 ‘구분/구별’을 의미함. 필요한 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을 구분한다는 뜻)를 실시하여 세금낭비 및 불필요한 조직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 재검토’는 전 대장성관료인 가토 히데키(加藤秀樹)가 설립한 ‘구상 일본’(構想日本)이 2002년부터 지방자치체 수준에서 시작한 것으로, 그 실제의 사정(査定) 과정에서는 대상 사업을 선정한 재무성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때마침 일본우정주식회사의 신임 사장으로 사이토 지로(齋藤次郎) 전 대장성사무차관이 취임했다. 사이토 사장의 인선에는 하토야마 수상의 의향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지만, 대장성의 사무차관까지 올랐던 하토야마 이이치로(鳩山威一郎)를 아버지로 둔 하토야마 수상이 ‘관료지배 타파’를 외치면서도 재무성에 대해서는 친화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에 정치에서 내정상의 제3의 과제는 ‘지역주권국가의 확립’이다. 이 ‘지역주

37) 両院国家基本政策委員会合同審査会(党首討論)・第171回 第1号・2009年5月27日；NPO法人・夢育支援ネットワークのホームページ(<http://www.parkcity.ne.jp/muiku/>)

38) 金子郁容, 『新版 コミュニティ・ソリューションーボランティアな問題解決に向けて』, 岩波書店, 2002, 264쪽.

권국가의 확립'은 사이토 세이이치로(斎藤精一郎, 당시 릿쿄대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PHP종합연구소의 프로젝트가 제안한 '일본재편계획', 이른바 '사이토 플랜'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³⁹⁾ 오자와 이치로와 구 민주당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사이토 플랜'의 골자는 국가의 규제를 철폐하고, 지역이 행정과 재정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전환하며, 거기에 중앙행정 각 부의 통폐합을 통해 지자체의 재편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연간 30조 엔에 달하는 세출감소를 실현한다는 것이다.⁴⁰⁾ 이에 영향을 받아 이후 하토야마는 가톨릭 혹은 EU의 원리라 불리는 '보완성의 원리'에 기초한 '지역주권의 확립'으로서 구상을 발전시켰다.⁴¹⁾ 그것에 따르면 지역주권국가의 모체는 강한 권한과 재원을 가지는 기초적 지자체인 '시'(市)가 되며, 기초적 지자체가 담당할 수 없는 사무는 광역지자체인 '권'(圏)이 담당하고, 광역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무는 국가가 맡는다는 '보완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지역을 행정과 재정의 의사결정권을 지니는 형태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이 구상과 거의 같은 '지역주권국가의 확립'은 민주당의 중의원 선거 매니페스트에도 실려 있다(매니페스트에서는 기초지자체에 관해서 '현재의 시정촌', 광역지자체로는 '당분간 현행의 도도부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구상을 염두에 두고 하토야마는 『보이스』에 게재된 논문에서 '재정위기의 극복은 우리들이 이 나라의 형태를 지역주권으로 바꾸고, 철저한 행재정 개혁을 단행하며 …… 정치의 근본적인 혁신이라는 노력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지역주권국가'의 실현은 매니페스트에도 '당면 5~10년간은 지역주권국가의 기초를 닦는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듯이, 최종적으로는 헌법의 개

39) 『朝日新聞』, 2009년 9월 18일, 「(鳩山首相研究)地域も外交も連帯重視「友愛」テコに道探る」.

40) 「無税国家」, 研究プロジェクト, 斎藤精一郎 責任監修, 『日本再編計画—無税国家への道』, PHP研究所, 1996. 이 연구프로젝트에서는 '주부제'(州府制)의 도입이 주장되기도 했지만, 하토야마 유키오는 오히려 인구 20~30만 명의 '시'(市) 수준이 기본이 되고, 그보다 광역의 자치단체는 보완적이며 완만한 결합체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州)가 아닌 '권'(圏)이라는 말을 채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41) 鳩山由紀夫, 『新憲法試案—尊厳ある日本を創る』, PHP研究所, 2005, 86~106쪽.

정까지를 필요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정책 과제와의 관련 속에서 민주당의 중의원 선거 매니페스트의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コンクリートから人へ)라는 슬로건 아래 개별 정책의 구체화와 실행이 자리 잡고 있다. 생활보호에서 모자가산(母子加算)의 연내 부활, 장애인 자립지원법의 폐지를 비롯하여, 보다 대규모 재정부담을 동반하는 어린이수당, 고교교육의 실질적 무상화, 연금제도의 개혁, 농업의 호별 소득보상제도 창설, 고속도로의 무료화 등등이 구체적인 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문제는 매니페스트가 공표될 때부터 문제시되었는데, 2009년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46조 엔에서 38조 엔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마저 상정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매니페스트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견도 점차 강력해지고 있어서,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의 이념에 부합하는 여러 정책의 실현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그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5. 나오며

이상에서 하토야마 수상의 ‘우애’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명해 보고자 했다. 현 시점에서 너무나 다의적인 ‘우애’가 어떤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점이 많다. 하토야마 수상의 소신표명연설에 대해서 ‘장황한 반면 내용이 없다’(오노테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자민당 중의원 의원)고 일축하는 경향도 있는 것처럼, ‘우애’를 둘러싼 의혹과 비판은 적지 않다.⁴²⁾ 그러나 ‘전후정치의 총결산’(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이나 ‘자민당을 부순다’(ぶっ壊す, 고이즈미 준

42) 『河北新報』, 2009년 10월 27일. 한편, ‘우애’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이 그러한 타자애적인 측면을 ‘이상주의’(『脳内』お花畑: 뇌 속의 꽃밭)라고 야유하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치로(小泉純一郎)와 같은 과거 부정의 케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우애사회의 건설’과 같이 일본의 미래상을 향한 수사를 제기한 하토야마 수상에게 (어쩌면 ‘열도개조론’을 주창한 다나카 가쿠에이 아래의) 참신한 가능성을 감지하는 것도 또한 사실일 것이다.

우정사업의 재고, 외국인지방참정권 문제, 오키나와 기지문제를 포함한 미일 안보체제의 재편 등과 같은 내정과 외교상의 중요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은 2010년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 연립정권의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연립 파트너인 국민신당 및 사회민주당이 내정·외교에 대해 이견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우애’ 정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 그다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애’ 정치의 앞길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그 중에서도 하토야마 정권에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연립정권이라는 ‘실패’의 전례가 있다.⁴³⁾ 선거 제도개혁의 달성 후 행재정개혁, 국민복지세구상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미일관계의 동요에 의한 압력에 노출된 가운데, 결국 사가와큐빈(佐川急便)에서 받은 차입금 미변제의혹과 같은 ‘정치와 자금’ 문제로 진퇴의 기로에 섰던 호소카와 내각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그렇지만 호소카와 내각에서 관방부장관이었던 하토야마 수상과, 연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오자와 간사장이 호소카와 내각이라는 전례를 경험하고 ‘학습’했다는 점이 이번 내각과 호소카와 내각의 차이이다.

43) NHKスペシャル, 『永田町 権力の興亡』, 全3回, 2009년 11월 1~3일 방영.

44) 하토야마 유키오, 『신헌법시안』(新憲法試案, 2005)에서는 그 첫머리에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앞에서 ‘헌법 개정’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그럴 겁니다. 당신은 할아버지의 DNA를 갖고 있으니까요”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하는 분이 많다. 그렇게 간단히 납득되어서는 곤란하다”라고 전제한 뒤 하토야마 이치로의 개헌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였을 “미국이 강요한 헌법이기에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와 같은 논리는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강요’받았더라도 장점은 평가해야 하며, “‘강요’받았는데 그렇지 않은가와 같은 조금은 감정적인 논의를 넘어서서 국민 모두가 편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고 싶다”고 ‘헌법제정(創憲)’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민당의 연명으로 생긴 ‘정치적 공백의 15년’을 지나 실현된 민주당 정권이 하토야마 수상의 오랜 지론인 헌법 개정⁴⁴⁾까지를 시야에 넣고 일본의 새로운 미래상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토야마 수상의 ‘우애’ 정치는 그 중요한 시도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⁴⁵⁾

45) 본고에서 분석한 ‘우애’의 정치사상과 실현은 향후 민주당 정권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의 것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일 것이다.

‘55년체제’라는 ‘미지근한 구조’(ぬるま湯構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권교체’의 실현에 모든 것을 건 듯한 느낌을 주는 오자와 이치로의 정치구상은 본인이 즐겨 인용하는 루키노 비스콘티(Luchino Visconti)의 영화 『레오파드』(The Leopard, 1963)의 주인공 사리나 공작의 “변함없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대사에서 보듯, 매우 유연한 것으로 비춰진다. 오자와의 정치구상에 관한 대표적인 저작인 『일본개조계획』(1993)도 ‘개혁포럼21’에 모인 10명 정도의 학자와 관료의 초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들을 단순히 합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렇지만 오자와 자신이 “최종적으로는 10회에 걸쳐 읽고 또 읽었다”라고 말하는 필생의 저서인 『일본개조계획』은 현재에도 오자와 정책구상의 기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유연함과 애매함이라는 느낌은 들지만, 하토야마 수상과 오자와 이치로의 외교 및 내정에 관한 구상을 비교해 보면, 거기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보인다. 외교에 관해서는 미국에 대한 거리감을 취하는 방식과 대중국 외교의 중시, 내정에 관해서는 개인의 자립과 ‘공생’을 주장하며 행재정개혁의 필요성, 지방자치를 중시하는 점 등이다. 동시에 상이점 혹은 경중의 차이를 지적하자면, 외교에 관해서는 지역주의에 대한 사고, 국제연합의 역학(오자와는 일관된 국제연합중심론자), 대 러시아 외교와 같은 점에 있으며, 내정에 관해서는 ‘공생’의 사고, 도시/지방의 관계와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원래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를 구체적인 정책에 근거하여 비교하려면 조금은 시간(양자의 정책구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다.

이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小沢一郎, 『日本改造計画』に加え, 『小沢主義 一志を持って, 日本人』, 集英社インターナショナル, 2006; 五百旗頭真・伊藤元重・薬師寺克行 編, 『90年代の証言 小沢一郎 政權奪取論』, 朝日新聞社, 2006; 渡辺乾介, 『小沢一郎 嫌われる伝説』, 小学館, 2009.

* 이 글의 원문은 영문이며, 서동주(서울대 일본연구소)가 번역하였다.

학계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독일 코블렌츠 연방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두 나라의 음악교류에 대해 4가지 관점에서 토론해 보았다. 첫째, 전쟁시기 독일에서 활동했던 일본음악가들은 누구였는가, 둘째, 이들이 행한 연주회는 어떤 행사의 어떤 유형이 있었는가, 셋째, 안익태와 고노에 히데마로가 자주 지휘했던 「에테라쿠」와 같은 일본전통음악이 가지는 프로파간다적 가치는 무엇이었으며, 넷째, 나치제국에서 일본음악가들의 프로파간다적 역할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해명해 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동맹국간의 문화교류라고 하지만, 일본음악가들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나치제국의 문화·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장식하는 차원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반대의 경우, 즉 독일음악가들이 일본제국에서 행한 다양하고 의미심장한 역할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데, 전체적인 음악교류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일본의 음악문화에 미친 독일음악가들의 영향에 대해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애’ 정치의 사상과 실천 :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의 외교와 내정 | 도자와 히데노리

투고일자 : 2009년 12월 17일 | 심사일자 : 2010년 1월 12일

하토야마 유키오가 새 정부의 정치적 비전으로 제시한 ‘우애’의 사상적 기원은 유럽통합의 주창자로서 알려진 쿠덴호프 칼레르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전에서 전후에 걸쳐 일본에서 쿠덴호프 사상의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가지마 모리노스케, 하토야마 이치로, 그리고 창가 학회이다.

하토야마 이치로가 쿠덴호프의 사상을 접한 것은 전후 공직에서 추방되어 아타미에 머물던 시기에 쿠덴호프의 저서 *Totalitarian State against Man*(1936)을 접한 것이 계기였다. 하토야마 이치로는 이것을 번역하여 1952년 『자유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특히 그는 자유와 평등을 위한 혁명은 있었지만 우애를 위한 혁명이 없었다는 쿠덴호프의 말에 감명을 받아 번역서의 출판과 함께 일본우애청년동지회를 조직한다.

‘우애’ 사상이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의 외교 정책에 미친 영향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미국 주도의 글로벌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비판적이고 동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하토야마 정권의 외교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후텐마 기지’의 이전에서 보듯이 미일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갈등 상황이 어떻게 수습될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가 주창한 ‘자립과 공생의 원리’는 ‘우애’ 사상이 내정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내정 과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 쇠약해진 공적 영역의 부흥, 둘째, 공적 영역의 부흥을 뒷받침하기 위한 철저한 행·재정 개혁, 셋째,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주권국가의 확립 등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성의 원리로 재편한다는 지역주권국가의 발상에서 ‘우애’ 사상의 강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 『일본비평』에 실린 논문들의 영문초록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홈페이지(<http://ijs.snu.ac.kr/>)와 그린비 출판사 홈페이지(<http://greenbee.co.kr/index.ph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